

■ 2026 새해설계 윤병태 나주시장

“영산강 르네상스… 12만 시민과 미래 100년 연다”

농생명·에너지 신산업 트트랙 성장 가속화
500만 관광시대·혁신도시 균형발전 완성도

“이제는 준비의 시길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가 분명히 체감되는 한 해로 만들기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년 봄으로 새해를 맞아 나주의 미래 100년을 관통하는 시장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인공태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농생명산업 고도화, 영산강을 축으로 한 생태·문화·관광 르네상스, 그리고 청년·교육·복지가 어우러진 균형 발전 전략이 윤 시장이 제시한 새해 설계의 핵심이다.

윤 시장이 내세운 첫 번째 방향은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다. 나주는 전통적인 농업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술과 결합한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푸드업사이클링과 기능성 식

품 개발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천년이음 나주배’, ‘나주들에찬한우’ 등 지역 대표 농축산 브랜드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전국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한 공동출하 체계도 강화된다.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도 이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기금농가 예방적 휴지기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건강검진 지원,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등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인공태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이다. 이에 시는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연구시설 착공을 앞당기고, 연구 성

과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관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 에너지산단과 노안 일반산단은 차세대 전력망 핵심 공급기지로 육성된다.

RE100 산단과 연계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고전력 반도체 국산화 기반 마련, KENTECH과 연계한 인재·창업 벤처 조성 등은 나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관광 전략도 본격화된다. 500만 관광시대 도약을 위해 2026년 ‘나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영산강정원·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읍성문 유산 복원,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나주호 둘레길 등을 하나의 관광 벤트로 연결해 도시 전반이 관광 자원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구상이다.

특히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완성도를 높인다.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꿈자립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빛

가람호수공원은 공연장과 놀이시설 확충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조성은 에너지 교육과 체험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상가 공실 해소 대책도 병행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

교육과 청년, 복지는 윤병태 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IB 교육과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영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청년 무상임대주택 확대, 청년 창업 지원, 365 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출산·양육 지원 강화는 청년과 젊은 세대가 나주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800억원 규모의 나주사랑상품권 발행과 명절 할인 행사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윤병태 시장은 “인공태양의 도시, 글로벌 애너지 수도 나주를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며 “12만 시민과 나주의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한천 기자 pose007@

영암,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32억2000만원

전년比 78% 증가…3년간 62억 모금

영암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32억2000만원을 돌파했다. 3년간 누적액도 62억 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3만34건 기부로 32억2618만4700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2024년 18억632만5600원 대비 79% 증가한 규모이며, 기부 건수도 1만5966건 대비 88% 늘었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 건수는 2만 8569건이며, 전체 모금액의 90%를 차지했다.

군은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 등 의미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 지역 우수 농특산물 담레프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기부자의 민족도를 높였다.

이런 노력이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절세 노력이 맞물리며 지난해 높은 기부 실적을 기록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107건, 기부금액은 2억 818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향우와 지역기업 등의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담레프제공 업체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생·품질 관리, 포장·배송, 고객 응대 교육을 병행해 왔다.

영암=한창기 기자 hck1342@gwangnam.co.kr

목포,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신호

목포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

로 나섰다.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3081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 ‘청신호’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해남군은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총 974농가, 3081명을 배정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많은 규모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내국인 농작업 기피 등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 방식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5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올해는 황산·평광·문화·내농협 등 3개 소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황산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40실 규모의 농업인 기숙사도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올해 배정 인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해남군은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총 974농가, 3081명을 배정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많은 규모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작업 기피 등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사증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시기 지연으로 인한 입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는 농가의 오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 한 전환점이다”며 “원활한 도입과 적기 입국을 위해 농가에서는 시증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인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h8239@gwangnam.co.kr



건강 관리 A to Z

면역 증진은 물론, 풀튼한 강과 피부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는 ‘유니베라 슈퍼겔 W’는 일로에 생산에 최적화된 엑시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일로에만 사용해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기와 혈관은 기본, 강과 피부 건강까지 “20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일로에의 친화 생강력을 한방에 온전히 담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남양상사부문 우수제품부문 선정 2019-2022년”



구성 및 가격
1호 1kg(971mL)×3병 | 135,000원
2호 150g(146mL)×10병 | 75,000원
디럭스 1kg(971mL)×2병 | 490,000원

이번
에요?

일로베라 편
50,000원
에디션
90,000원

잇기 건강이
염려되는 분
간·건강을
잇기로
잇기·건강
식품으로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건강이
염려되는 분
밀크씨슬총출을
주원료로한
간·건강식품이라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자주
간의 피로를 느끼다면
일로에서 간·건강을
깨닫기로써 간이
피로한 현대인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 및 가격
3개월 | 540캡슐
370,000원
설명 방법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회식이 찾은 편이라
꼭 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매일 관리하는 간·건강

간은 건강할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부쩍 지치고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남양 931 플러스로

건강
기능식품
K-HSA

유니베라
하나로!
건강과 면역을
챙기세요!

동해 지역소상공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

광남일보 O 나주=광주광역시

uniVeria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 알로에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